

SK 텔레콤, 2020 년 1 분기 실적발표

- 매출 4 조 4,504 억원, 영업이익 3,020 억원, 순이익 3,068 억원
- 전년 대비 매출 2.7% 증가... 5G 가입자 증가 및 New Biz. 성장 효과
- SKB-티브로드 합병법인 출범... 종합 미디어 기업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 나서
- “다변화된 포트폴리오의 균형 있는 성장을 기반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할 것”

엠바고: 배포 즉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컨퍼런스콜은 금일 15 시 예정이며, 아래 URL 통해 청취 가능합니다.

(국문) http://cc.onoffjoin.com/webcast/skt/skt2020Q1_kr.php

(영문) http://cc.onoffjoin.com/webcast/skt/skt2020Q1_en.php

[2020. 5. 7]

SK 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 www.sktelecom.com)이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2020 년 1 분기 매출 4 조 4,504 억원, 영업이익 3,020 억원, 순이익 3,068 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7 일 밝혔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5G 가입자 증가 및 New Biz. 부문 성장으로 2.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G 주파수 비용을 포함한 5G 네트워크 투자 비용 등으로 6.4%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SK 하이닉스 지분법 이익 영향 등으로 17.9% 줄었다.

■ 이동통신 매출,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 매출 성장세 지속

SK 텔레콤의 별도 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 3.9% 증가한 2 조 9,228 억 원을 기록했다. 코로나 19 여파로 로밍 매출 감소, 이동통신시장 성장 둔화 등의 영향이 있었으나 5G 가입자 증가에 힘입어 작년 2 분기부터 이동통신 매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SK 텔레콤은 전 산업 영역을 통틀어 최초로 23 년 연속 국가고객만족도(NCSI) 1 위

를 달성하고 1 분기 말 기준 5G 가입자 265 만명을 확보하는 등 5G 시대에도 1 위 통신 사업자로서의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 있다.

SK 텔레콤은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게임, AR/VR 등 차별화된 5G 특화 서비스를 선보이고, 5G 서비스와 고객 혜택을 연계한 '5G 클러스터' 기반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국내외 사업자들과의 초협력을 통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통신 경험을 제공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 New Biz. 영역 성장 지속...'다변화된 포트폴리오' 기반 실적 개선 기대

미디어, 보안, 커머스 등 New Biz. 영역에서도 견고한 성장세가 이어졌다.

SK 브로드밴드의 1 분기 매출은 IPTV 사업 성장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한 8,235 억원을 기록했다.

SK 브로드밴드는 지난 4 월 30 일 티브로드와의 합병을 완료하고 821 만 유료방송 가입자, 648 만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보유한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로 거듭났다. 합병법인은 미디어 플랫폼 고도화, 비즈니스 모델 확장 등을 통해 IPTV 와 케이블 TV 서비스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며 올해 4 조원 이상의 연매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ADT 캡스와 SK 인포섹을 합한 보안사업 매출은 2,914 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다.

ADT 캡스와 SK 인포섹은 AI, 클라우드 등 ICT 분야 기술 혁신과 SK ICT 패밀리와의 시너지를 기반으로 기존 출동보안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무인주차, 홈보안 및 퍼스널 케어 등 신규 사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연 매출 1.3 조원의 목표를 이뤄낼 계획이다.

11 번가와 SK스토아로 이루어진 커머스 사업 매출은 전년도 4 분기부터 적용된 회계기준 변경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했다. 회계 기준 변경 효과를 제외하면 약 3% 성장했다. 11 번가는 결제규모가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고, SK 스토아는 PC, 모바일 채널로의 상품 판매 활로를 넓히며 매출이 44% 이상 상승하며 뚜렷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11 번가는 파트너십 확대 및 배송 역량 강화를 통해 비대면 소비 확대 트렌드에 부합한 판매 경쟁력을 확보해 성장 보폭을 넓혀갈 계획이다. SK 스토아 역시 자체 브랜드 상품을 강화하고 신속한 기획·소싱 역량과 판매 채널 확대를 기반으로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또한 SK 텔레콤은 '언택트(비대면) 시대'에 유용한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SK 텔레콤은 최대 100 명까지 다자간 통화를 지원하는 'T 그룹통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언택트 시대 성장 사업으로 주목 받는 게임 부문에서는 지난 3 월 싱텔, AIS 와 '게임 플랫폼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게임 전문 커뮤니티 및 게임 미디어 콘텐츠 제공 플랫폼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 또 지난 4 월 e 스포츠 전문 기업 'T1'은 BMW 그룹과 스폰서 파트너십을 맺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윤풍영 SK 텔레콤 Corporate 센터장은 "회사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지난 3 년간 MNO, 미디어, 보안, 커머스 중심의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왔다"며 "4 대 사업 영역의 균형 있는 성장을 통해 위기 상황을 전략적으로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